

# 예향광주·관광전남 만끽 '남도기차둘레길' 눈길

광주시·전남도·문체부·코레일 등 협력  
목포·보성선 개통 기념 기차여행 4종  
28~35% 할인상품...내달 16일 첫 운행

광주시·전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코레일,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목포에서 보성까지 새로 연결된 기차길 '목포-보성선'을 활용한 '남도기차둘레길' 여행상품을 출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상품은 부산-보성-광주를 연결하는 경전선 노선을 활용한 1박2일 상품으로 남도의 초록빛 자연과 광주의 문화예술을 짝인쇄 있게 담았다. 여행 상품은 ▲보성·광주편 ▲부산·울산편 ▲

진주·하동편 ▲해남·장흥편 등 4개로 매주 토요일 출발해 다음날 출발 장소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이다. 진주·하동편은 5월16일부터, 보성·광주편, 부산·울산편, 해남·장흥편은 5월23일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특히 부산·울산편과 진주·하동편은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해 목포역을 거쳐 여행하는 광주·전남 여행객들을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매주 토요일 광주송정역에서 오전 7시9분(목포역 8시2분) 출발해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8시27분 광주송정역(목포역 오후 7시45분)에 도착한다.

이들 상품은 부산 수육백반, 울산 복순도가막걸리, 진주 냉면, 하동 제철정식 등 현지식 식사와 숙박, 현지 차량 이동까지 포함한다.

부산·울산편은 ▲오륙도 스카이라이프 ▲유엔기념공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숲 등을 거치며, 진주·하동편에서는 ▲경상남도 수목원 ▲진주 승산부자마을 ▲진주성 ▲하동 쌍계사 ▲화계장터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보성·광주편 여행상품은 ▲전일빌딩 245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913 송정역시장 등 광주지역 명소들을 포함해 구성했다. 해남·장흥편은 ▲땅끝전망대 ▲해남 비원 ▲정남진 편백우드랜드 ▲정남진 토요일시장 ▲장흥 교토소 영화 세트장 등을 둘러본다.

참여 신청은 지난 28일부터 코레일 누리집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회차별 접수하고 있다.

여행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누리집(www.korail.com/www.korailtrave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이용료와 숙박료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여행상품은 시장 원가보다 28~3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성·장흥·해남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기차 이용료 70%, 단체버스 이용료 70%, 숙박비 50% 등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의 할인 혜택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시범 사업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경전선과 목포-보성선 정차 시·군 중심 관광상품 개발을 확대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

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남도기차둘레길 사업은 시민들의 여행 부담을 낮추고 광주가 가진 문화와 예술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좋은 기회"라며 "철도망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주를 남부권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철도 연계 여행상품을 통해 남부권을 대한민국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K-관광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전남 고유의 맛과 멋 등 남도다운을 살려 '하루 더 머무는 여행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유지 추진단 킷오프 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유지추진단 가동

첫 회의 열어 목표 기관 추진 상황 점검  
6월까지 정주여건·인센티브 등 홍보 계획

전남도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가시화됨에 따라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2차 공공기관 유지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유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추진단은 황기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국별 유지

목표 기관과 역할을 분담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수도권 지방정부 간 유지 경쟁도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목표 기관을 발굴하고 기관별 유지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공동 대응했다.

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를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유지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각 실·국은 소관 분야별 유지 목표 기관의 임직원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을 통해 전남의 정주 여건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홍보하는 등 현장 중심 유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추진단 출범은 공공기관 유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의 시작"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 실·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발로 뛰는 유지 활동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도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 ▶1면 '여수세계섬박람회'서 계속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한 뱃길과 하늘길도 열린다. 로얄캐리비언호 등 국제크루즈 11항차가 예정돼 있으며 베트남, 중국, 몽골을 오가는 국제선도 16항차 운항기로 했다. 국제크루즈·국제선을 통해서만 2천2천여명 이상의 해외 관람객이 여수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직위는 국도교

통부에 현재 하루 2천인 인포에서 여수으로오는 항공편을 5편으로 증편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전남 섬 관광 패러다임을 '잠시 들르는 여행'에서 '머물고 다시 찾는 여행'으로 전환하며 섬 관광 시대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중기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남은 기간 행사장 조성, 안전 관리, 숙

박, 음식 등 분야별로 촘촘히 준비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계섬박람회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박람회 현장을 찾아 행사 준비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 도, 염전근로자 인권보호 실태조사

11월까지 근로환경 등 면접·심층조사

전남도는 29일 도청 김연수실에서 '염전근로자 근로 실태 조사' 착수보고회를 열어 염전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전남도와 시·군 관련 부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남경찰청, 전남도 인권위원회, 전남연구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염전근로자의 인권 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방향과 정책 보완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실태조사는 염전근로자의 인권 침해 예방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남연구원은 착수일부터 11월까지 염전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

으로 면접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조사 주요 내용은 ▲염전근로자의 취업 경로 ▲생활·근로 환경 ▲임금 지급 실태 ▲인권 침해 여부 ▲건강 상태 등이다. 전남도는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으로 근로자 처우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추진 일정, 조사 방법, 조사 항목 등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생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결과의 실효성은 높일 방침이다.

손영근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염전근로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염전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50명 신규 채용

광주시, 내달 12-15일 접수...8월 투입

광주시는 2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담당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정책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는 총예산 5억원을 투입해 자치구별 체납관리단을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동구 5명, 서구 11명, 남구 6명, 북구 14명, 광산구 14명 등 총 50명이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독려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

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선다.

최종 선발자는 오는 8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5월12-15일 4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누리집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채용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 간 매년 채용 규모를 152명(6개월 근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급히 찾습니다]**

- 빌딩: 현금200억/병원용도/ --조건 건평2,000평/주차100대내외
- 빌딩: 30억~50억/7명대기중 --조건 인구밀집지역/월세수익용
- 현금25억/개인병원개설/대단지아파트주변 --승강기,주차5대/10년이내건물

이밖에도 중 소형 상가건물/리모델링용 상가/창고/담양,장성/화순지역 계획관리 2,000평~7,000평까지 매물찾으려고 현장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교환시대: 상가,주택,토지,아파트 등등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생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